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01동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과 규장각 사이 건물 (구 후생관)

일시. \_\_\_\_\_

2017년 6월 7일(수) 오후 1:00~4:00

장소. \_\_\_\_\_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101동 210호)

주관. \_\_\_\_\_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언론사 주필과의 대화

# "문재인정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 〈오시는 길〉

### ■ 대중교통 이용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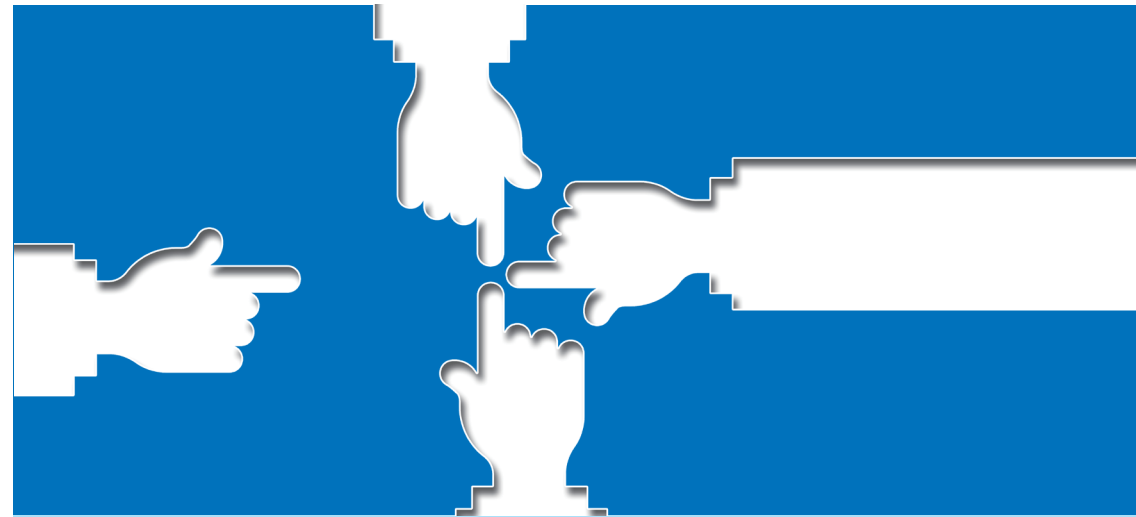
서울대입구역(지하철 2호선) 3번 출구 → 5513번 버스 이용, 법대입구 하차  
또는 학교 셔틀버스 이용, 대학본부 하차

### ■ 자가용 이용시

정문에서 300m 직진 → 나들문 1에서 좌회전 → 아시아연구소 주차장

**“국가정책포럼 조직위는 열려 있습니다. 자발적 참여를 환영합니다.”**

조직위원: 홍준형 (행정대학원 교수), 김병연 (경제학부 교수), 장덕진 (사회학과 교수),  
김의영 (정치외교학부 교수), 강원택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근 (국제대학원 교수), 송호근 (사회학과 교수, 기획위원장)



## 초청의 말씀

국가 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새 지평이 열렸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물고 온 국가 지도자의 공백은 해결을 요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경제는 미래변동에 대비하느라 신열을 앓고 있으며, 효율성을 다한 낡은 사회 제도와 관행이 여전히 우리의 현실을 묶고 있습니다. 모두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개혁의 방향을 두고 시비와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정치와 사회를 분열시키는 이념적 대립 양상이 모든 담론과 공론에 그대로 재현되는 상황에서 개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이 질문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 운명을 가늠할 만큼 중대합니다. 서울대 '국가정책포럼'은 이 문제를 진단하고 논의하기 위해 언론사 주필, 주간, 논설실장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언론은 사회의 감시 등불입니다. 감시와 견제, 현실 진단과 보도, 미래 탐색이 언론의 비판적 본질이라면, 진리탐구와 지식생산의 본고장인 대학도 그러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중심적 가치를 놓치고 흔들릴수록 시민들은 대학과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온 한국사회는 어떤 가치를 새로이 정립해야 하는가? 개혁의 밑그림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가? 언론과 대학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의 미래를 향한 탐조등을 비춰보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좋은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국가정책포럼 기획위원장

송 호 근

## 프로그램

13:00~13:30

개회 사회	장덕진 (포럼 기획위원, 사회학과 교수)
격려사	성낙인 (총장)
기조 발표	송호근 (포럼 기획위원장, 사회학과 교수)

13:30~16:00

포럼 사회	한인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발제(무순)

김종구 (한겨레신문 편집인)
손현덕 (매일경제 논설실장)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토론(무순)

강원택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대일 (경제학부 교수)
김은미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명환 (영어영문학과 교수)
박명규 (사회학과 교수)
홍준형 (행정대학원 교수)